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익사사고는 강에서 먹을 감는 소년층에서 가장 많다.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수영미숙 등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또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도 익사가 발생하고 있다. 익사사고는 기도에 물이 들어가는 질식사 주원인이나, 실제로 기도나 폐에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기도에 물이 전혀 없는 후두경련으로 인한 기도폐쇄 즉 건성익사도 있다. 사고 시 소생술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소생술자의 경험이 미숙할수록 치사율은 높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소생 후에도 더 위험하다.

글 이희택(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일러스트 이은주



# 어린이 물놀이

##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

### 응급처치

물에 빠진 환자의 응급처치는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로 대응할 수 있다.

단, 바다 속이나 강 속에서 구조자들이 피해자에게 구강 인공호흡을 시술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시행하며 동시에 신속히 물 바깥으로 환자를 이동시켜 지표에 등을 대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요령은 최초 2회의 구조 호흡과 30회의 흉부압박(가슴 중앙부분)을 2분간 5주기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주의할 것은 물을 폐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엎거나 복부를 무거운 것으로 누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심폐소생술 중 입으로부터 약간의 물이 나올 경우 이를 닦아 주면 된다.

젖은 옷은 제거해주고 담요로 보온해 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안전 예방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몸에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빈혈이나 심장병 질환자, 수면이 부족하거나 몸에 열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낄 때에도 수영을 삼가야 한다. 음주 후 또는 식사 직후의 물놀이도 매우 위험하다.

또한 호기심 등으로 혼자서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대부분 어른들의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들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